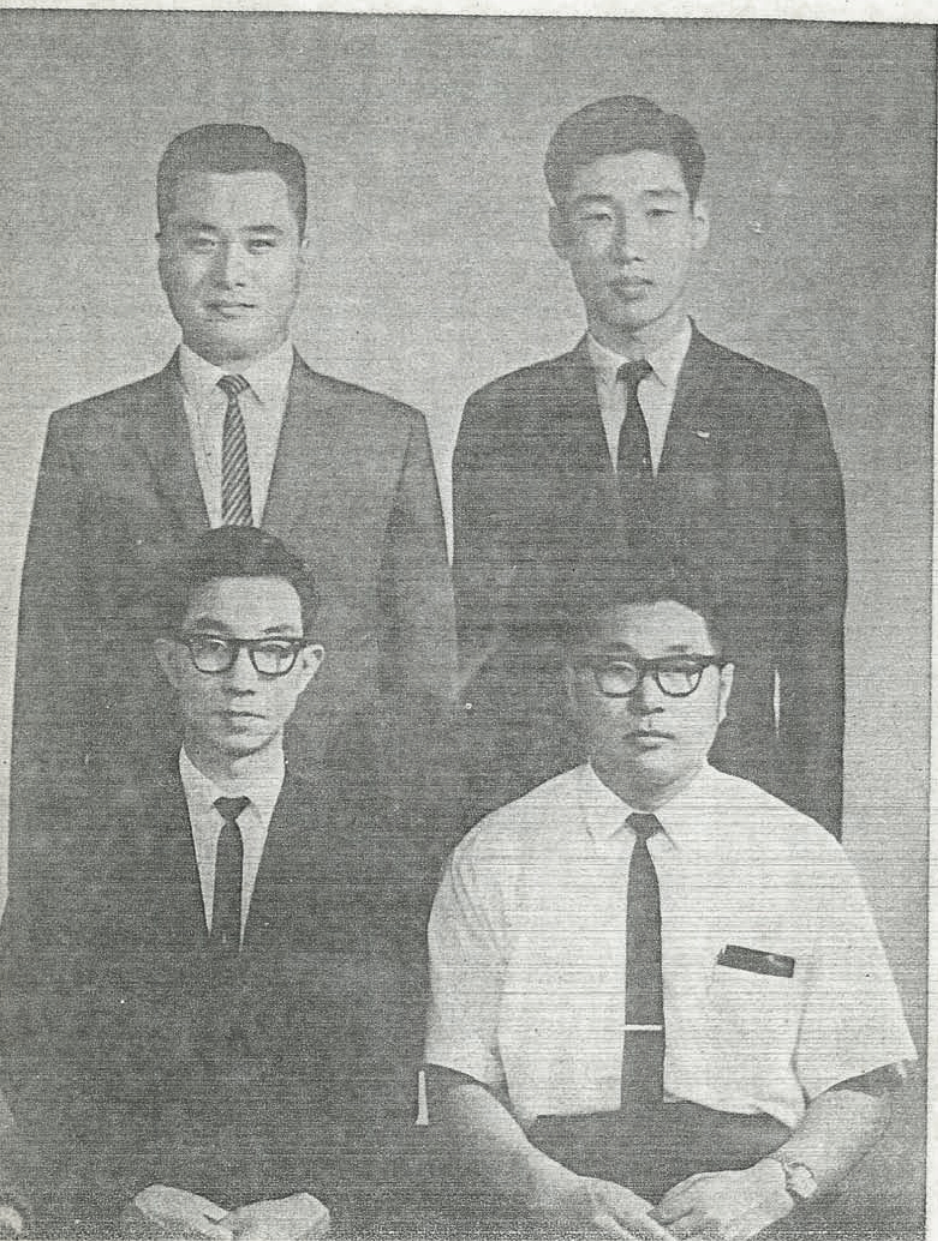


# 성도의 벗



1965

## 목차

독자의 노래 (시편 23편).....	1
권두언 (선교부장).....	2
예언자의 말씀 (대관장).....	12
새얼굴 (카우리 형제 환영).....	18
바자를 마치고.....	19
나의 제언 (박재암).....	22
역사를 창조하는 발걸음들 (험프스 장노 한국에 오다).....	25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 (한인상).....	26
11월에 부치는 글.....	29
한국 선교부 역원 세미나.....	32
토타리 클럽 홈런.....	36
각 지부 소식.....	37
나에게 마이크를.....	40
멀리 있는 성도들.....	42
알림.....	43
9월달 칠판지 명단.....	44

	상좌	송 태섭	지방부 제1보좌
표지 설명:	상우	서 원	지방부 서기
	하좌	이 호남	지방부장
	하우	박 재암	지방부 제1보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  
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  
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  
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  
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 卷 頭 言 Editor's Page

## “하나님의 편재”

宣教部長 裴 一 文

물론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나 있다"고 가트친다. 그러한 신성한 영감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일컬어지지만 무한한 우주를 가득채우며 모든 인간의 영혼을 비추어 준다. 죠셉 스미스가 "감람나무 일" "낙원의 나무에서 딴것"이라고 합당하게 부른 계시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안다.

.....하나님의 앞에서 방대한 우주를 채우기 위해 나아오며... 그것은 만유안에 있는 빛이며 만유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고 만유가 지배받는 율법이니 그것은 보좌에 앉아 영원의 가운데서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지배하는 율법이니라

또 다른 곳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진리는 빛이요 빛은 영이

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리고 영은 세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노라....

신성한 내재에 관한 실제적인 관계들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트리감 영은 대획에 도인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셨다:

당신은 힌두교에서 그리스도 영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안다. 그리고 그와같이 호렙룻도 가지고 있고 또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왕국들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항구로 성스럽게 준비되었고 컬럼보스는 이 약속된 땅을 발견하도록 영감을 받았으며 미국의 헌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고 함은 말일성도들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권제하는 영이 희랍과 로마의 사색가들을 감동시켰고 유럽 역사의 신교 개혁자들도 감동시켰다고 가르친다. 똑같은 증거로서 위대한 아세아의 문화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또한 감동받은 것임을 의심할 바가 없다. 순서없이 몇사람 지명해 보던, 페르샤의 웨트도시, 인도의 카리다사, 중국의 류츄와 포추이, 한국의 정동주, 일본의 바쇼와 지까마쓰, 등이다. 주님의 영은 알고 싶어하고 상상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그러한 사람들은 비교할바 없는 중국 상나라의 청동 제품과 당나라의 도기와 성나라의 조원술을 가져왔고 한국의 고려자기와, 아잔

다의 산지에 있는 장려한 그림과 조각을 만들게 하였다. 그것은 아라비아 숫자와 인도인의 영과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에 서는 돌레바퀴, 종이, 가동금속판과 독판 등사기를 발명케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달성은 부리감 영이 1860년에 동부와 서부 운하를 비교하여 이야기한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독교계의 여자들은 다른 이방인 국가와 동 인도에 있는 여자들과, 실뿔기와 비단 짜기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 그리고 소위 이방인 국가들에 있어서의 예술과 과학은 여러면에 있어서 기독교인 국가의 재능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면 고대 이방인 국가를 검토해 보라.... 그들의 건축물과 기계부문에 있어서의 그들의 다른 산물들을 오늘날 그들의 업적과 멸망에서 보여진 것과, 그리고 비교적 사라져가는 이러한 지분속에서의 자만스러운 모든 기독교계의 지식에 비교하여 시험해 보라.

그리스도의 영은 대단히 유익한 기록인 전 세계적인 보배를 준비시키는 도구였다. 예언자 니파이를 통하여 주님은 많이 말씀하셨으며 또한 말일의 이방인들을 경고하시어 성스러운 계시의 혜택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셨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였고 바다의 섬에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늘위에나 땅아래를 통치하고 인간의 자녀들에게 내 말을 가져다 주나니 그러하도다 지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져다 줌을 너희는 알지

듯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더욱 받을 것을 인하여 불평하느냐. 너희는 두 백성들의 간증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나는 다른 백성과 같이 또 하나의 백성을 기억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한 백성에게 다른 백성에게와 똑같이 같은 말을 이야기하노라. 그래서 두 백성이 함께 산다면 두 백성의 간증도 또한 같게 되리라.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나니 나는 내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같으며 나는 내 자신의 기쁨에 따라 나의 말을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너희는 생각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나의 사업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끝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때부터 그 이후의 영원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가졌다고 그 안에 나의 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너희는 생각치 말지며 내가 더 기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치도 말지니라.

나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바다의 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노니 저들은 내가 저들에게 말한 것을 기록할찌니라. 이는 내가 기록된 책들로 인하여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저들이 행한대로 기록된대로 그것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니파이 2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인용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바는 당신의 마음대로 생각해 보라. 주님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놀찌어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이틀찌니 저들은 그것을 기록할 것이며 나는 또한 니파이인들에게 말할찌니 저들은 그것을 기록할찌니라 나는 또한 내가 인도한 이스라엘지파의 다른 족속들에게도 말하리니 저들은 그것을 기록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지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말하리니 저들은 그것을 기록할 것이니라.

이러한 예언은 기원전 6세기에 말씀되었고 그 말성은 오늘날에 이른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뜻하는바를 자세히 토를 것이나 적어도 분명히 할것은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인간의 상태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고 기록하게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절이 암시하는바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그리고 신도와 같은 종교의 성스러운 경서들은 하늘의 율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에 따라 생활하려는 그들의 뜻에 따라 적어도 복음의 온전함이 주어진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비 그리스도인의 대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을 보아 일찌기 도세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과 대동소이한, 중요한 감독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점에 관련하여 우리는 토로나이가 말한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며 악한 것은 모두 마귀에게서 온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아무도 "바가발 기타"에게 나라 내게 되기를 바랄 수 없으므로 잔디와 인도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불교의 달마를 사랑하였고 도교의 선한 교훈과 노자와 공자의 논어를, 영감과 진리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않고 각각을 사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고학자이며 교회의 총관리 역원인 비.에이취.토버트에 의해 강화되고 가들어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세워진 반면에 그것은 진리를 알게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러한 설립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한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현명한 자와 예언자들을 모든 인간의 자녀들 틈에 여기 저기 세우셨으며 그들의 방언과 국민성에 따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 속에서 발견될지도 모르는 것과 같은 완전한 진리를 항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의 진리를 항상 주신다. 그러므로 돌몬교는 모든 위대한 교사들이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종임을 주장한다. 그들은 영감 받은 사람들이며 주님이 그들을 발견한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시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공자나 중국의 철학자나 도덕가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세기 동안 수백만의 하나님 자녀들을 지배한 위

대한 도덕적인 금언을 가트치도록 어느 정도 영감받은 사람임을 돌론이 존경하기를 싫어하지 않지 않는가! 불교의 석가가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어느 정도의 진리를 가르치므로서 최소한도 희미하게나마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찾도록 진리를 가르쳐준 것을 존경하는 바이다. 그와 같이 아라비아 예언자도 미개한 영을 우상숭배에서 그들이 전에 지니고 있던 신성보다 더욱 뛰어난 하늘과 땅의 창조주에 대한 관념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을 돌이킨 것이다.....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충분히 개화된 순수한 영육을 발견하시면 서로 성령에 의해 교통할 수 있나니 보라 하나님은 그를 인간의 교사로 만드시느니라.

한 때 12사도회의 일원이었던 오손 에프. 위트니 장노는 "돌론의 힘"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똑같은 결론을 지었다. 거기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다른 설교와 교회 지도자들의 기록에서 처럼 이슬람의 종교와 그 창설자 모하메드는 "신성의 의지"라는 표현으로 일관되었다.

그것은 모하메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슈마엘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신앙의 개화와, 그것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축복에 따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7,8세기에 권세들 이트킴을 관찰하였다.

사실, 죠지 에이. 스미스는 가트치기를 모하메드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도덕적인 교리를 전파하였다고 하였다. 스미스 장노는 공공연히 다음과 같은 것을 전파하였다.

이 사람(모하메드)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꾸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이 분명하였다.

같은 대회의 다른 도입에서 파리 피.푸라트는 "모하메트교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주장하기를, 이 비기독교인 신앙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으며 그 시대의 기독교인 교회보다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많은 편견이 없지도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바는, 우리가 유럽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소위 교육면에서 모하메트의 역사와 이튼까지 고려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호메트교를 현재 세상에 있는 기독교와 비교하여 생각하려는 것은 일종의 이교도 주의이며 또 어느면에서 두려운 일이라는 것과, 반면에 약간 절름발이 격인 훌륭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모하메트교 주의적인 기독교를 생각치 않는한, 한대디로 말해서 기독교라고 불리워진 이교도주의를 생각치 않는한 의문의 우상숭배적인 면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력하기 힘들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고 또 덮어놓고 기독교인의 이튼을 취하는 히랍과 토마교회들은 두수한 우상들을 숭배하였다. 이 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성과 그의 예배에 관한 단순한 주제에 관하여, 만약 더 이상의 것이 없다면, 나는 나의 초기 전통이나 교육이나 편견을 초월하여, 진리의 편에 있다는 점에서의 모하메트권과 우상숭배와 이

교도주의 편에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계의 양면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있든, 아무것도 없든, 상념적인 것이든 간에 몸도 지체도 감정도 없는 신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의 신조에서 인식된 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절정의 시기에 온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무엇이든 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들 신경의 기초는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하메트교가 기독교에 대항하여 번성하였고 기독교는 모하메트교의 번성으로 위협에 처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오히려 모하메트교가 번성하므로서 그것은 적어도 하나의 진리, 보통으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입증하였으므로 모하메트교가 계속하는 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대신 런던 탑위에나 성 바울 교회의 탑위에 초승달 문장이 물결쳤다 하면 그리고 모하메트 종교가 일련의 세대를 강화하고 무력을 증강하는데 치중하는 전통을 가진 로마종교 대신 강화되었다면 그러한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들은 우상들 대신 한분의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든 하지 않든간에 적어도 이론으로는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론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도,

지체도, 감정도 없는 관념적인 존재로 그들의 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국가와 기독교인 권세와 기독교인 성직 수임에 찬성하는 나의 모든 교육과, 소위, 어린시절의 나의 편견과, 독서와 사색의 습관을 가진 나의 추리력은 나토 하여금, 마호메트교인의 역사와 교리는 일찌기 그리스도인의 신경과 예배에서 발견되고 또 거짓되게 명명한바 지상에 곡해를 가져다준 가장 부패하고 가증한 우상숭배에 반대하는 표준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_ \* \_ \* \_ \* \_ \* \_ \*

(18페이지에서 계속)

의 아내요, 또한 어머니라고 카우리 자매님을 만나본 분들이 전하고 있다.

의학에 관한 것으로 일곱권의 저서들 출판하여 의학계에 큰 것을 공헌하였으며 안으로 또한 밖으로 그는 참된 성도요, 좋은 아버지요, 건실한 시민으로 살아왔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카우리 형제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 손을 잡고 더욱 부지런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預言者의 말씀 —

女 人 의 世 界

大管長 데이비드 오·맥케이

우리는 범해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확  
와 너무 인접한중에 생활하는 것이어서 우리들은 대개 그 범  
확을 인식하거나 미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1963년 8월, 내  
모친의 출생지인 웨일의 한 예배당을 헌납하러 갔을 때 나는  
이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교통수단의 범확을 주  
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찌기 육십육년 전 내가 기선으로  
영국에 갔을 때 필라델피아로부터 약 일해 반이 걸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작년 8월 나는 똑같은 길을 뉴욕으로부터 여섯시간 반만에 여행하였으니, 이 육십육년간의 발전과 범확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세기의 삼분지 이가 되는 이 세월에 통하여 여자의 지위도 변화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둔학이나, 과학, 예술, 사회경제 등에 참여하여 탐구내지 발전하며 그 밖에 온갖것을 배우고, 온전한 여성으로 길을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며 여인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에 관여하는 사실을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인의 기쁨속에 늘 남아있어 느껴져야 할 세계의 분야 곧 영역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던지 간에 이 세계의 영역은 미와 덕성과 여인으로의 지혜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첫째가 가정을 이루는 일이요, 그 다음이 가르치는 일이요 세번째가 자애로운 봉사의 영역입니다.

가정이 인격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강조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본능적으로 동의하는 마음과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잊게될지라도 어렸을 때의 경험들은 흥미하나마 기억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대평원을 횡단하신 우리들의 어머니와, 할머니와, 증조할머니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이상이, 결혼에서 보여지며 가정을 이루는데서 보여지는 사랑인것인바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에게도 가장 높은 이상은 사랑이어야 하며 이 진실한 사랑의

표현속에서 발견되는 덕성은 우리들에게 있어 세상적인 것에 그 뿌리를 둔 것이 아니오 영적인 것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것 중에 하나가 예지토가 득찬 깨끗한 모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복지 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근본적인 미덕의 가르침을 우리는 오직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성이 슬기토워야 하며 순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성이야말로 인간애의 흐름의 원천이 되기 때둔입니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독이 있는 약품을 사용한다던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균물질을 사용한다던가 하여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더럽히는 자는 여자토의 성에 성실치 못한 것이며 인류의 힘과 영존의 대열에서 적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같이 모성과 부성에 순결과 속박없는 탄생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기르는 책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덟살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훈이나 도법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교리와 성약에서는 "...그 죄는 부도들의 머리위에 있노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8:25)

현재 지상의 여러나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협정위반 그리고 개인 문제나 국가나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부정



직의 돌결이 씻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규례와 법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만이 교사로서의 영향력을 미쳐주는 단지 한분은 아닙니다. 가끔 어머니보다도 더욱 위대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주는 사람은 미혼인 고토나 이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혼 아주머니의 "빛나는 희망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희생과 혼자 골돌히 생각하는 것과 대신 갖는 포부는 좀처럼 역사가나 전기작가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조카들의 가망없는 인격을 형성해주는 자로서 그녀는 삶과 고통과 찬양받지 못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와같이 필립 랫셀은 랄프 왈도 에머슨에게 머리 두디 에머슨이 끼쳐준 영향력에 관하여 평할 때 서술하였습니다.

에머슨의 생활을 읽고 어떻게 그의 아주머니의 영향력이 그의 행토를 형성시켜 주었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샐셔가로 인정받은 소년 이 되게 하였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는 교사로서의 젊은 소녀들에 관하여 한마디 쓰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젊은 소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십대들의 운명을 형성시킬 힘이 있는 영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회에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암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십대 소녀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사회를 개선시키든가 퇴보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통계가 있는 젊은

남자들의 의문스러운 행동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 하는데 여자는 관대하게 그것을 방관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항하므로써 자신과 여성을 염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는 "어떠한 남성도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므로써 사랑을 가장하는 아부적인 말로 응수하므로써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젊은 소녀의 생활에서 그녀는 유혹자는 되지 않으나 교사로서 자업적이고 고귀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성과 가트침 다음에 여자는 인정있는 봉사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감명적인 예는 누가에 의해 전해진 기적입니다: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가 읍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오늘날의 관광객들의 흥미있는 경험이 되는 것은 그 엷습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트때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의 산것을 보이니"(사도행전 9장 37-41절)

이 몇마디 말씀속에 어떠한 이야기가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까! 이 광경은 고대 교회에서 여자가 베푼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봉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상당하고 병들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소망은 오늘날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조직을 세계에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적십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열매를 온 땅에 뿌려주고 있는 그 유익한 나무는 후토렌스 나이팅게일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인정의 씨에서 자라났습니다.

내가 강조하는바는 비록 똑같이 중요하고 방대하지만, 그리고 해가 감에 따라 남자들만의 활동으로 생각되었던 많은 직업에 여자들이 진출한다고 하지만, 여성의 영역은 남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조화와 행복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자업은 여자로서 하여금 가장 효과적으로 인류를 축복하고 인류에게 봉사하게 정하신 범위내에서 공경을 받을 때 발견될 것입니다. 나는 여자들의 영역을 세가지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으나 이러한 영역안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공경하면 할수록 전세계의 남자와 여자와 자녀들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참된 남자와 같이 찬양할만한 존재는 생활에 있어서 다시 없습니다. 또한 참된 여자만큼 신비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아름답고 겸양하며 우아한 여자는 창조적 극치입니다. 이러한 미덕을 여자들이 자기의 생활에서 의도함과 신성관 저항할 수 없는 충동과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로 인도하는 성작으로 소유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분리 되어야 한다는데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

## 새 얼굴

### Welcome! Brother Cowley.

금번 신입 팔머 선교부장의 제일보좌관으로 임명된 레이 지. 카우리 형제는 한눈에 치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수십년 동안 교회 공직을 맡아 일해온 생활의 신앙인이오, 굳건한 간증을 가진 훌륭한 신권의 형제가 우리 선교부를 위하여 일하기로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카우리 형제의 고향은 몰몬의 고장인 유타주의 베니스라는 작은 마을이다. 1919년 3월 6일에 출생하여 줄곧 이 마을에서 자랐고 베니스 국민학교를 거쳐 유타주의 리퀴월드 고등학교를 수업하였으며 유타 주립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 밖에도 의과 훈련과정 수십여개를 끝마쳤으며 현재는 미육군 대령으로 한국 주재 유엔군 병원 총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카우리 형제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 일하는 한편 형제와 이웃의 건전한 영적인 생활을 지켜오며 일해온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본국에 있을 동안은 샘 앤토니오 제일 와드의 감독으로 일하였다.

특히 카우리 형제가 샘 앤토니오의 제일 와드 감독으로 일하고 있을 때 도미했던 송래섭 형제를 친형제 이상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 바로 이 카우리 형제다.

슬하에 삼남 일녀를 두었고 카우리 자매는 대표적인 몰몬

(11페이지에 계속)

바자를 마치고

# Bazaar

한국에 선교부가 탄생된지 두번째의 바자회가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의 향연"이란 이름으로 열렸다.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되었으며 수많은 협제자매 및 친지와 벗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원래 바자회의 의의는 상호부조회에서 기금을 모으는 가장 큰 길이라는 데 있다. 우리 교회의 여러 보조 조직 중 상호부조회만은 지부의 예산이나 기타 재정적인 뒷바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운영해 가고 있다. 또한 상호부조회에서는 "종파나 국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병자와 가난한 자와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고 상가를 도우며 도덕을 바로잡고 사회생활의 미덕을 굳게하며 인간생활을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부인들의 활동범위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확대하며 종교, 교육, 문학 그리고 우아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키우며, 신앙을 키우고, 영혼을 구제하며, 복음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라고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활동해 왔고 그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매들은 기쁨과 행복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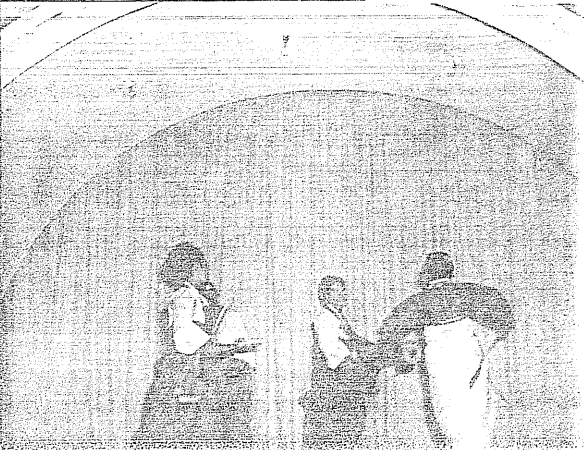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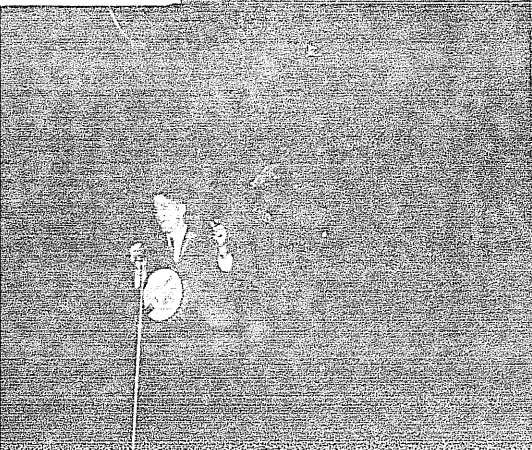
이렇게 보던 훌륭한 상호부조회를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한국의 자매들이 아닌가 한다. 전쟁과 궁핍, 사회적 혼란의 연속, 그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억척스런 삶의 투쟁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



↑  
전시품을  
앞에 두고



활동하는  
자매들



은 것, 부드러운 것, 사랑스러운 것들을 저 깊숙한 곳에 틀어박혀 그런 것들이 진정 우리의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찾을 겨를도 없이 지나쳐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의 본업의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이룩된 이 상호부조회가 한국 땅에서는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그 큰 목표를 향하여 달음질치고 있으며 작고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연중 협사인이 바자회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목표하에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메꾸겠다는 자매들의 열의와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원 종일의 직장생활, 고된 가정사, 학교 생활의 여가를 이용하여 한뼘 한뼘 뜬 그것들의 결정들이다. 그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수민시간으로 할애하여 그날의 그 시간에 대갈려고 달음질쳤던 우리들이다.

하나의 일을 다 해내기란—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이루어졌든 그렇지 못하든—그리 쉬운게 아닌상 싶다. 눈에 보이는 노고의 결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노고나 계획의 과정이 더욱 벅찬것이고 의의가 있는 것이리라.

바자회가 끝나자 입술이 부르텨던 자매, 눈을 뜨지 못했던이, 몸살이 난 자매 그 외에도 많은 애기들이 있다. 이렇게 자신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나 보는이들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

끝으로 바자회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선교사님들, 교회의 역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각 지부 상호부조회에서는 자기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들을 비망록에 적어둠으로서 내년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의 提言

### 박 제 암 형제

나의 인생관과 신앙관은 그 뜻과 목적에 있어서 동의어임을 밝혀 두고 나의 제언의 주제를 나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과 사랑과 소망과 이상을 내용으로 하며 유한한 인생에서 무한한 신앙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가난과 불만과 고난의 역사를 지녀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궁의 철학, 불만에 대한 의로운 반항 그리고 고난과 고심의 진리는 나토 하여금 참 영원한 진리를 알게하며, 그 진리가운데 신념과 의지보다 강한 신앙을 알게했고 보다 고차적인 역경관에 자신의 희생과 봉사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의 영생으로 가는 길이며, 빛인 소망과 능력과 이상이 실현되어지는 사실임을 인식했으며, 그것에 대한 확실한 행복감은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은 귀한 유산이며 험실을 가까이 바라보고 개척해 살아갈 신앙철학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지금의 믿음의 재산이 된 것이다.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하였고 가난은 나에게 겸손과 용서와 이해와 봉사를 가르쳤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첫째되는 속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특권을 주었던 것이다.

요한 버넌(천국 역정의 저자)은 그가 감했던 배트포드 감옥으로 인하여 자기 일생을 그 두엇 보다 감사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대신양 부흥 설교가였던 두덕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가 고통을 구하지 않으나 그것이 우리가 구할만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오이어는 말하기를 "고통 거리는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였다. 투터 포드는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없이는 종종 냉각해 버린다"고 하였으며, 그는 다시 말하기를 "어떻게도 우리의 원수는 눈이 어두운지! 그들은 우리를 꺾박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를 주님의 잔치집에 보내는 고나"라 하였다. 난 이런 글들을 읽고 나의 신앙을 증진시켜온 사실에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불타는 인생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이러한 놀라운 결론을 내렸음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다. "삶과 괴롭음은 둘이 똑같은 것이다. 삶의 바퀴에 달려서 돌아가는 동안에는 괴롭음이 없을 때가 없다. 그것은 삶과 괴롭음이 우연적이나 부수적이 아니라 실재적이오 불가피의 것인 까닭이다.

괴롭음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삶 그것을 떠나는데 있는 것이다"라고 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절당적으로 한숨을 짓게하는 결론일까? 그렇지만 수백만에 달하는 많은 불교도들은 이것을 매일 같이 신조삼아 반복하는 것이니 "아덕사두까, 난날"이라한다. 이것을 번역하면;(일시적이요, 고통이요, 공허 즉 비(空)였다)라 함이다. 이것이 불교의 인생관일진대 나의 인생관은 주워진 현세의 육신적 축복에 고통이 임하고 가난이 따르고 시험이 부딪칠찌라도 육신 가운데 영안을 밝

혀 전지전능 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성신의 인도로 통해서 교통할 수 있음과 고통과 가난을 이용하여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자표로서 행복과 영생을 약속하는 시금석으로서 내 생활에 신앙을 돕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에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나의 신앙관은 여기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신앙관에서 나의 사랑의 정의는 설명되어 지고 있으니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되고 성화되어지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책을 읽어보아도, 이야기나 역사에서 들어 보아도,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참다운 사랑이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읽을 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마태복음 22장 37-39절의 위대한 두 계명을 지켜 살아가고져 함이 나의 인생관 나의 신앙관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하심을 감사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 하기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한 사랑의 마음을 영접하는 용서와 이해, 남의 부족을 증족시키는 협조와 봉사,의 절차를 지나 다음에 오는 수확이 하나님의 속성에 유사한 사랑이 아닌가 나는 느끼며 그 사랑을 찾고 있다. 우리 한국에 회복된 교회안에서 모두 이런 사랑이 풍부히 생산되어 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언 우리 신앙관에 승리의 율계관이 될것임을 믿는다\*

# 歷史를 創造하는 발걸음 . . .

## Hanks 장노 한국에 오다



70인 정윤희 회장단의 제 1보좌 메리온 디. 램프스 장노는 10월 12일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는 환영가 속에 선교부에 안착하셨다.

1952년 조셉 필딩 스미스 12사도 정윤희 회장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참복음을 전도하는 땅으로 봉납하신 후로 몇분의 교회 대간부들이 다녀가셨

지만 이번 램프스 장노님의 방한은 신임 팔머 선교부장님의 취임이래 교회 대간부로서는 처음이었던만큼 그 의의가 큰 것이였습니다.

램프스 장노님은 도착후 오후 3시부터 청운지부 예배당에서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금식 간증회에 참석하셔 짧은 선교사님들의 굳건한 간증을 들으시고 스스로도 감한 간증을 전하시였으며 이튿날 선교부장님의 토타리 클럽에서의 연설회에 동석하시고 오후 7시30분 동부지부에서 있었던 한류지방부 환영

(35페이지에 계속)

##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

한 인 상 장 노

주어진 제재가 벌써 가득이나 작은 스스로를 겸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 너무도 합당치 않은 자아를 발견하게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젊음이 온통 힘으로 뭉쳐지고 오직 이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 엄배의 젊은이들과 함께 남해의 어느 마을에서 해병 군가를 소리쳐 부르던 때의 일이다.

작업복에 찌들은 땀, 살에 배인 필승의 기개, 고향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장사지낸채 명령과 질서속에서만 존재가 있다고, 채 갖들지 않은 젊음을 달래기도 했고.....

그러던 어느날 난 가벼운 두장을 하고 소대장이 손가락질 해준 가상적진을 향해 알게 설치된 철조망 밀을 포복해 가고 있었다. 벌써 여러번 거듭한 훈련이라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는 이미 가슴에 정리되어 있었지만 장애물 통과 훈련 때 기구의 고장으로 어깨를 뚫시 다쳤던 나는 철조망의 4분지 1을 지 통과하기 전에 벌써 뚫시 지쳐버리게 되었다. 반듯이 누워 어깨와 군복 뒷금치로 땅을 밀고 앞에 잡은 소총은 철조망을 위로 쳐들어 올리며 어쨌든 전진을 해야 했지만 —

그 때의 기억은 새롭다. 나는 졸도해 가고 있었나 보다. 가들 가들 하늘이 움직였고 바토 좌우에서 함께 전진해 가던 전우들의 기척이 잠잠해 졌다고 느꼈을 때였다. "제일 분대장", "제일 분대장" 분명 내 직책을 부르는 소리였지만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모두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질서와 명령안에서만 존재가 인정되는 곳에서 명령으로 주어진 임무로 하여 한번도 게을렀거나 비겁하지 않았던 나는 나들 부르는 소리가 났을 때 비록 대답을 할 수는 없었으나 해야 할 일이 다시 명백히 살아왔고 마음은 전진해 간다는 자세로 불붙어 왔다.

사력이 모두어져 전진이 계속되었을 때 얼굴은 땀방울과 더운 눈들 같은게 퍼져내렸고 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선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 하나님 주변으로든 의로운 마을이 연결되어 있다. 젊은 사업들이 갖고 싶어했던 화토 주변에서는 멀다.

영웅으로의 인생을 터득했을 때 벌써 젊음은 확실한 고가웃을 개켜두고, 벌거벗은채 벌판으로 나가게 했고 한개의 영광을 위해 요구되는 수고의 값을 알게했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때로 눈들이요, 고난이요, 의도음이지만 끝내 기쁨이란걸 알게해 주었다.

아브라함이 일각도 지체하지 않았고 명령을 받은 다음날 벌써 도리아 산으로 아들을 앞세워 걸어가고 있었을 때 사랑 하는 아들을 번제해야 한다는 멍뚫한 마음은 아비로의 외로 움과 고난을 넘어 벌써 기쁨으로 온전되어 있었던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 합당한 아들은 아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도하겠다는 거다. 의심하지 않겠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밀어온 이 걸음 걸이를 성실하게 계속해 가고 싶은 거다. 세상이 노하여 나를 핍박하려 하여도 그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요,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 - \* -

(39 페이지에서 계속)

돌문경 번역의 임무를 맡고 약 4개월여를 함께 생활하던 한 장토의 참석을 환영함이었는가? 밤고구마의 향연. 말일성도 들은 모두 건강한 생활인임을 이 토임에서 엿볼 수 있었다.

형제들을 보내는 부산역은 언제나 자매애로 따듯하다. 아리랑이 울리고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산 형제 자매 들의 정은 더욱 굳어진다. 안녕, 안녕히 부산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있는 땅이기 때문인 거다.

## 11월에 부치는 글

.....  
.....  
*The harvest is past,  
the summer is ended,  
and my soul is not saved!*

추수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어도,  
나의 영혼은 구함을  
얻지 못하였도다!  
(교리와 성약 56:16)



정말 우리의 여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추수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힘들었던 수고의 여름과, 보람을 거두던 추수의 날들을 빈들에 서서 도리켜 봅니다.

우리는 오늘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의 영광을 의심하지 않았던 외로운 신앙으로 하여 우리는 덕구름과 천둥으로 위협하던 윈 여름을 장한 마음으로도 일해 왔습니다.

부트른 손에 쥐어지는 부듯한 기쁨! 뜨거운 햇빛에 거슬린 검은 얼굴들! 검은 살갓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을 나눌 특권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벗들이여! 사랑하는이여! 이제막 들끓이 저녁잔치를 벌리고 돌아간 저 빈 들판으로 잠시 나아가 우리가 보낸 여름과 다시 닥아올 여름을, 또한 이미 끝낸 추수와 다시 맞이할 추수의 날을 반성하며 준비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은 여름이 끝난 날이며 다시 여름의 씨가 묻혀지는 날이오, 추수는 끝났으나, 구제받지 못한 오늘의 슬픔과 채워지지 못한 빈창고를 바라보는 안타까움만으로 이 귀한 날들을 허송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웃을 수도 있으며 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내일로 향하는 소망으로 불타 올라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실관이 끝나고 나서, 아 추수가 끝나고 여름이 지났지만 내 영혼은 구제받지 못하였다는 슬픈 탄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편지실 함)

들에는 오곡이 두트러의 어 알찬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기쁨으로 사람들은 천고마비의 계절 운운하며 자업을 완상한



다. 그러나 이 결실의 고마움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우수수 돌아가는 가을 바람 두심하다. 어미에서 떨어지는 가랑잎은 구슬프다.....엄거주춤하게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을이 싫다고 한다.

어느 노처녀들은 쓸쓸함에 울었다고 한다. 정말 계절의 탓으로 울었다고 한다. 인생을 빈주먹으로 와서 빈주먹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군상들에겐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가을이 쓸쓸한 계절일 수 밖에 없다. 온 여름날 서늘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불렀던 벼짚이에게는 진정 가을이 생활을 위협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또야별에서 쉬지않고 땀 흘려 겨울을 준비한 동물들에게는 안식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가득찬 계절인 것이다.

예지를 가지고 와서 경험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겐 가을이 정녕 쓸쓸한 계절이 아니다. 오히려 추수에 바쁘며 아버지가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둬드리는대 정성을 다해야하며 현명하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정말 가을은 부지런해야할 계절이며 반성의 계절, 생각하는 계절이어야겠다.

( 권집실 구 )

## 한국선교부 역원세미나

1965년 10월 15일.

뚜거운 새벽의 어둠을 이겨낼자 아니면 결코 아침의 영광을 맞을 수 없다. 역사의 아침은 오래고 힘들었던 새벽의 어둠이 걷히면서 시작된다.

10월 15일, 한국 선교부의 명든 발걸음의 종지부를 찍고 옷때두새를 가다듬으며 선교부 산하 지도자들의 세미나를 갖기 위해 우리의 작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은 수륙 수천리 길에 등장했다.

꼭 제주도예까지 가서 세미나를 갖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적어도 필자가 생각하기엔) 크고 작은 세상일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제법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치 못하는 가난한 한국의 현실을 독자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탓하지 아니하려 하는 선교부장의 영감적인 설계는, 모든 일정을 끝낸 오늘에사 더욱 감사하고 또한 놀라움기까지 한 것이다.

일행 23명 중에는 홍일점 팔머 자매님의 미소도 엿보였고, 심각하기 까지한 이 모든 절차가 예외없이 뚜거운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밝혀둔다.

계획했던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돌아간 것은 아니어서 일행의 지도자들을 긴장케 하기도 했고, 자기개인 보다는 형제들의 안전과 평안을 염려하며 긴장한 지도자들의 도숨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나예집 서다란 한 가트침이오, 뜻을 같이 하는 자의 사실적인 신뢰요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가졌다는 기쁨이었다.

15일 밤엔 작은 오락회를 가졌고 이 모임마저 서토의 거리틀(만약 있었다면) 단축시킨 훌륭한 기획이 되었다.

10월 16일, 그리고 17일, 잠시 바닷바람을 쐬고 난후 치밀하게 계획된 일정대로 여러 구룹으로 때로는 한데 한덩어리가 되어 검토와 반성과 계획이 엇갈려 토의되며 진지한 회의가 계속되었고, 이제는 참으로 힘찬 거보를 분명히 내딛어야 하겠다는, 내딛을 수 있다는 자세와 신념의 모습을 참가자 전원 개개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해결되고 논의 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분석 검토되었고 마지막 모임인 17일의 금식 간증회에서는 참가자 전원 이 뜨거운 간증을 전하였으며 복음이 주는 평화를, 복음이 허가하는 기쁨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맛보았다.

"참으로 유익하고 효과적인 기획였습니다" 모든 회의 일정을 끝내고 났을 때 일동의 입에서 동시에 폭발된 진하게 압축된 한다미였다. 꺾짜인 일정에 쫓겨 비록 육신으로는 피로했으나 중요로웠던 그 영적인 중만과 뜰족함을 어찌 붓이나 혀로 감히 설명하려 조차 할 수 있을까?

확산으로 폭발하여 제주도가 바다 가운데 솟아오른 이래 하나님의 참된 종, 수십명을 맞은 일이 처음이었을 것이오,

제주도는 이제사 그 존재의 의미를 보람으로 바꾸어 갖았을 것이다.

17일 오후 5시반, 모든 순서를 끝내고 제주도를 떠나면서 일행은 그저야 더 머물어 쉬고 싶다는 마음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단 불질러진 의욕과 요구와 간증이 설제하는 빛나는 내일들을 위하여 —

제주도여! 탐라국여! 안녕.

부산에 6시 20분쯤에 도착, 수영비행장에서 부터 온갖 네온등이 휘황한 부산 시내까지는 버스로 약 40분을 달려야 하는 거티였고 지극히 평안한 마음이 된채 간증으로 가득채워진 일행은 드디어 "성도들아 두려울것 없다"를 서곡으로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찬송가 십여곡을 불렀다.

만족과 행복에 도취된, 그리하여 어린 아기가 된 키다리 (실례!) 선교부장님과 젊은 애기 아버지, 지방부장님의 들뜬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짧은 간증과 교회 소개가 두 한국 선교사중 한 사람에게 의하여 달리는 버스안에서 전달되었고 모든 것은 그대로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부산에서 저녁식사를 끝내고 별로 여독을 풀 겨를도 없이 일행은 밤 10시 부산발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어야 했다. 우리는 정말 의롭지 않다는, 아니 우리에게 마음의 형제 자매

가 있다는 행복한 나눔의 시간, 보내고 맞는 역사가 수억만 번도 더 있었겠지만, 가난하기는 하되 따뜻한 정성과 마음으로 전송나온 부산지부와 부산동구 지부의 사십여 성도가 다시 만날 때를 제창해 줄 때 역사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업과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모습을 똑바로 보았다.

기차가 부산을 빠져나와 어둠을 뚫고 북으로 달리는 동안 역원들 하나 하나의 가슴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차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가하신 이 지상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성장으로 연결 되어야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 5장 48절)라는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하며 노력할 것을 기대하시는 말씀일가?

끝으로 이 한국 선교부 역원 세미나가 진실로 한국 선교부와 지방부에 보다 더 큰것을 기여할 수 있기를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 빌고 싶다.

- \* - \* - \* -

(25페이지에서 계속)

회에 참석하시여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여러나라의 돌본 청소년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한국 성도들의 신앙 태도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쁜 일정 가운데 선교부장님과의 요담을 통해서 한국 선교부의 발전상을 심중히 검토하시고 10월 14일 서북항공기 편으로 이한 하셨습니다. \*

\* 토타리 트럽 홈런 \*

팔머 부장님의 선교활동은 막하 증휘으로 눈부신 길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토타리 트럽에 연사로 초청된 부장님은 사회 저명인사와 각종 종파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물몬의 바른 모습과 이상을 설파, 듣는이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으며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진 비틀어진 판단과 편견적인 태도를 바로잡아 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밝히시었다.

작은 우리토서는 성취하지 못할 이 놀라운 이투움을 우리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이분, 우리의 선교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개개인도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기 선교사토써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을 다짐하고 싶다.



## 各支部 消息

### 청운 지부

#### — 앞 뜰에서의 파이어 사이드 회 —

서울에서의 막동이 지부 청운지부에서는 지난 금식주일 (10월 3일) 파이어. 사이드회를 앞 뜰 잔디밭에서 배풀고 가운데 피어논 토담불에 고구마를 구어 먹으면서 미국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갈 때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 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

#### — 또 하나의 돌돈 가정 탄생하다 —

노무-선교사였던 김상호 형제는 서부지부 민순임 자매와 지난 18일 정오 팔마 선교부장님의 주례로 많은 가족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성대한 결혼식을 갖었다. 복받으시기들.

### 삼청 지부

#### — 지부 간관의 단장 —

"지부예산은 우리의 손으로"라는 신념하여 지부예산 모으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삼청지부에서는 지출되어야 할 분야의 시설 수리 및 페인팅을 지부회원의 손으로 전부 맡아서 하고 있는바 지난 15일에는 철대돈과 지부 간관이 새토 은빛으로 단장하여 지부의 품위를 높였고 더우기 지부 간관은 한국 서예계의 기린아인 홍숙도 형제의 친필로 쓰여져 보는

이의 다음을 흐뭇하게 해주었으며 학생들의 자랑거리로 회자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삼청지부는 지부간관 감상객의 환영기색도 감돌아 왓 하나의 선교수단이 될거라나, 아뎬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도 즐거운 일은 교회를 위한 봉사이외엔 다시 없는듯.

(지)

### 부산의 두 지부 소식

신임 선교부장이 부산지부들 방문한 것이 첫번은 아니었지만 10월 2일 동구지부의 송재협 형제의 부인 되시는 양명주 자매님과 때를 같이하여 복음공부를 끝낸 한채심 자매의 칩례식에 참석하여 주신것은 우리의 크나한 영광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아울러 양 자매님과 송 형제님의 애기들이 대신권을 소유한 형제님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로서 부산동구지부엔 지부역사상 최초로 온전한 돌몬가정의 탄생을 보게된 것입니다. 이 가정과 이 형제 자매님 들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김)

부산지부를 방문하신 선교부장님께서 부산지부 지부장단 회의에 참석하시어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

특히 비공식으로 과견된 성도의 벗 취재 기자가 들러본 부산지부는 언제나 처럼 조용하고 따듯해 보였으며, "다시 한번"을 다짐하는 결의의 표정이 눈과 가슴에 와 부딪칠 때



는 조용히 주먹을 부르주었다고. 지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뱀  
뚨 장토이하 지부회원 여러분의 노력이 덕 부산지부를 이루  
시키기를.

- 10월 2일 저녁 부산 동구 지부 -

"안녕하십니까 선교부장님?" 경상도 사투리는 억설 수  
특 좋은가 보다. 복음파티를 준비한 뉘슨 장토약 드렛지 장  
토의 수고도 감사했지만 일치단결하여 협조하는 성도들 없이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 이웃 어른 되시는 분들과 사회인  
사 40여명이 참석해 주신 이 모임에서, 팔머 부장님은 근대  
계시의 중요성을 발명과 발견이라는 어휘들과 비교하시며 역  
설하시었고 듣는 사람들을 모두 감동케 하시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시어 모임을 빛내주신 숨은 수고의 자매님들을 하나님  
께서 분명히 상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 부산의 화이어 싸이드 -

부산지부: 두말할 것 없이 따듯한 모임. 선교부장님  
을 모신 흐뭇함이라!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음을 우  
리는 토흡할 수 있었다. 사중창을 위해 열일을 제쳐놓고 연  
습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과 더우기 지도예 열을 다하신 한자  
매님 "복 많이 받으시오"

부산 동구지부: "내가 좋아라는 성구"를 회원들이 돌아  
가며 읽으면서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한 이채로운 순서였다.  
미숙한 그러기에 성실했던 자세들, - 조금만 더 조용했다면  
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내일의 설계토 연결되게 하자. 특히  
(28페이지에 계속)

## 나에게 마이크를....

바자를 모두 끝내고 성도들이 선교본부 강담을 떠나고  
났을 때, 그리고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내 머리속엔 생각  
만으로도 날이 찡그려지는 소란한 영상들이 남아 땀들었다.  
불행하게도 나와같은 심정의 성도가 한들이 아닌듯. 바자전  
시 획란 결로 저 아우성치는 돌대기 시장일 수는 없지않느냐  
는 이야기인바 상호부조회는 바자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바  
자를 가질 마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인)

"감사합니다"하는 인사를 받았다고 해서 불쾌하게 여길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나 "감사 합니다"하는 말앞에 붙이  
는 말에 따라 느낌은 여러가지로 달라지기 마련. 한가지 예  
로, 집회가 끝난후에 교회 역원들이나 집회를 사퇴한 사람  
들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을 흔히 보게되는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누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누구의 축복이 되는 것인지를 생  
각해본다면, 과연 감사는 누가해야 할것인지, 분명히 역원들  
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면 그러한 인사를 하기 전에 좀더 조  
용히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영)

겸손은 말일성도의 상징이라고 한다. 겸손이야말로 모든 사  
람에게 환영받는 태도이다. 그러나 동양의 미덕인 "겸양의  
덕"을 너무 발휘해서 교회 활동에 참여와 협조를 결여(?) 하

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돌톤 성도들의 "다이나믹"한 면을 한국에서는 발휘시키지 못함은 우리 같이 생각해볼 문제.....

(식)

평소의 습벽은 일조 일석에 교정되지 않는 법..... 지난번 햄즈스 장노의 환영회시 제법 긴장은 하였으나 아직도 교회의 대간부를 맞는 태도로서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다. 평소에 있어서의 회원들의 신권존중 도입의 준비성꼭 경건성이 부족함을 여실히 나타내 모처럼의 환영회에 선교부장님 이하 뜻있는 사람들의 민망함을 금치 못하게했다. (식)

재미있게 번역해 봅시다. 원문을 그대로 의위두어도 재미 있겠죠?



*Happiness is a butterfly, which when pursued is always just beyond your grasp, but which if you sit down quietly will light upon you.*

## 멀리있는 성도들

- \* 유춘재 형제는 울산에 가있는 비들기부대의 강영철 형제와 덩초부대의 한 무웅 형제에 이어 유춘재 형제가 10월 20일에 울산으로 떠나게 되었다. 삼척지부에서는 지난 17일 저녁에 대호정에 모여 떠나는 마음과 보내는 마음을 한데 모아 환송회를 열고 유형제의 무운 장구를 기도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사하기를.
- \* 2개월 전에 도미했던 이충길 형제는 건강관계로 예정했던 학업을 중단하고 정양중이라고.
- \* 김응득 형제는 지난 9월부터 트리감영 대학에서 수학한다고.
- \* 홍범식 형제는 여름방학 동안 아이다호의 농장에서 일하다 다시 유타주에 돌아가 학업을 계속중이라고.

범식형! 상흡형! 영범형! 그리고 응현아, 우식아! 또 범식 형제, 응득 형제! 영철아! 춘재야! 두웅아!

또 섬나라로 떠난 상인 형제! 태선 형제! 안배 자매! 방강 자매! 정자 자매! 부자 자매! 조국의 가을은 길어가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은 차곡 차곡 가슴에 와 쌓이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날을 기다리며 조국의 형제 자매들은 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의 건안을 빌고 있습니다.

### 알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을진대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알고저하는 것은 성도들의 상정.....

이번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나라안 밖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 "멀리있는 성도들"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마음 모두 편집실에 보내 주시어 -소.

#### \* 성도의 벗 사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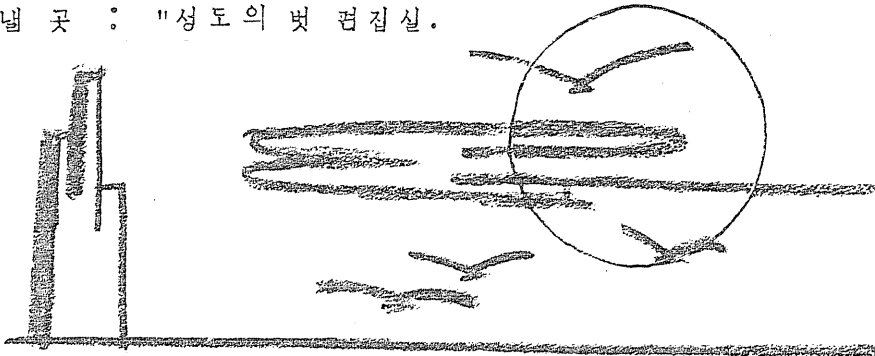
김용일	부산동구 지부	주재 기자.
한혜자	부산지부	주재 기자.
주덕영	삼청지부	주재 기자.
김석중	서부지부	주재 기자.

#### \* 원고 모집

성시, 수필, 신앙 간증, 단편, 멀리있는 성도들에게, 회원들에게 주고 싶은 말.

제출 기일: 매월 13일 까지

보낼 곳 : "성도의 벗 편집실."



○ 울담 한국 지방부 칙령자 명단

서부 지부

임 정숙, 신 통일, 최 군자, 조 병국, 홍 기송  
홍 권, 김 수효, 이 재숙, 홍 인경, 김 미령

삼청 지부

김 정실, 김 종술, 이 현숙, 임 명재, 양 규철

청운 지부

신 연수, 노 석환, 정 정자

동구 지부

최 현자, 최 하엄

대구 중앙

노 재순, 이 영식

부산 동구

허 경도, 국 금옥

부산 지부

김 정려, 강 톨자

## 편집 후기

편집실의 창너머 인왕산 기슭에 단풍이 빨갛대로 빨개  
졌습니다..... 성숙의 계절 가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  
신 자연의 은혜 가운데 포근히 쉬게해 줍니다. 형제와 자매  
님들에게도 결실의 가을이 찾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성도의 벗"은 내용의 충실을 기도하여 인선을 서  
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도의 벗"이 명실공히 형제와  
자매님들의 벗이 될것을 자부합니다.

금년 상함회 독서 과정은 "성도의 벗"으로 결정되었으  
니 모든 성도들에게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간부수의 확장  
에 따라 "조판"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보관용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 宣敎本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雲洞 7番地  
淸雲支部 } ⑦ 3995
- 三清支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清洞 5番地  
⑦ 3596
- 東部支部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134의19  
⑨ 1005
- 西部支部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2街58의1  
⑦ 1208
- 大邱中央支部 大邱市 三德洞 2街 24番地  
② 6659
- 釜山支部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5番地  
② 1371
- 東區支部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 10



성도의 벗

發行人 스벤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韓 仁 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本部